

Today Chart Bo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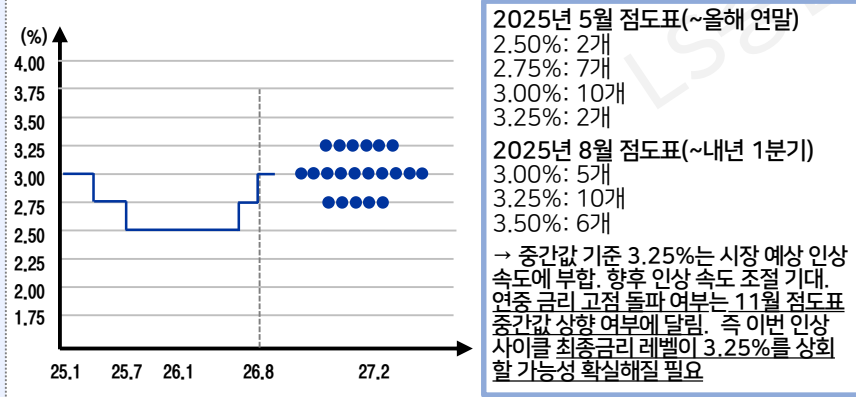
2026. 8. 27

채권 우혜영

whydele@ls-sec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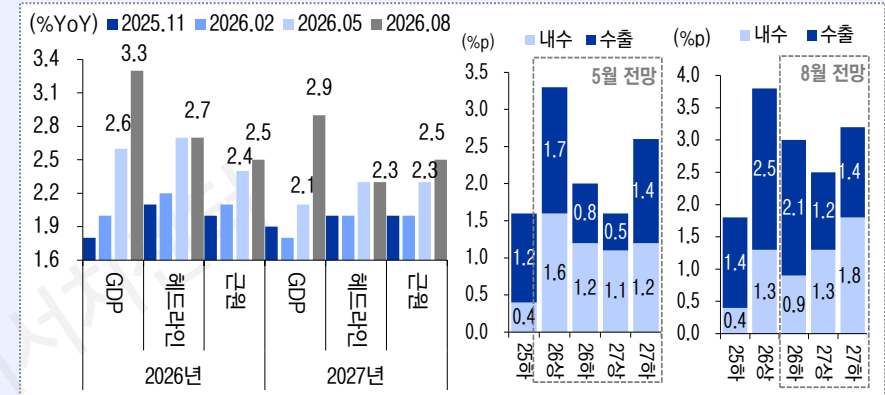
8월 금통위 Review: 가래보다는 호미, 선제적 대응에 나서다

구분	2026년 8월	주요 변화 및 평가
금리 결정	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 0.25%p 인상 적절	-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언급 선제 대응을 통해 최종 비용 축소 가능. 취약차주 고려해 금중대 금리 동결
국내경제	수출 및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 지속	- 7월 '성장세 확대'에서 수정 - 7월 '소비도 양호한 흐름' 삭제
소비자물가	앞으로 그간 높아진 비용압력 전이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이 점차 커지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 상회하는 오름세 나타날 것	- 7월 '국제유가 하락' 삭제 - 7월 '상당기간 높은 수준 나타날 것' → '목표 상회하는 오름세'로 수정
금융시장 및 주택시장	수도권 주택가격은 높은 오름세 지속 가계대출도 상당폭 증가	- 7월 '오름세 확대'에서 수정 - 7월 '큰 폭 증가'에서 수정
정책방향	국내경제는 수출 및 투자 호조 지속, 소비 회복세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 이어갈 것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할 필요 물가-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	- 7월 '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견조한 개선 흐름'에서 수정 - 7월 '높은 환율 변동성' 삭제 - 7월 '인상 기초 이어나갈 필요' 삭제



자료: 한국은행, LS증권 리서치센터

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했지만, 약간의 걱정이 있다



Key Point

- **정책금리는 3.00%로 인상. 황건일 위원은 동결 소수의견 피력**
 - 신현승 총재, 7월에 이어 연속 인상에 나선 것에 대해 선제 대응임을 강조. 신 총재는 뒤늦은 대응에 비해 선제 대응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안정시켜 인축 강도, 기간 줄이고 궁극적으로 성장 측면 부담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
 - 소수의견: 전술적 차이(인상 시점)일뿐 전반적인 공감(추가 인상)이 있었음을 언급
- **연속 인상에도 점도표 중간값이 3.25% = 시장 예상에 부합**
 - 4Q26 1차례 인상 + 1Q27 동결 or 4Q26 동결 + 1Q27 인상
 - 결국 추가 인상 시점 차이일 뿐 당초 예상했던 최종 금리 레벨 상향을 의미하진 않음
 - 11월 점도표에서 중간값 3.25%로 유지된다면 국고 금리 추가 하향 안정 전망
- **내수·수출 순성장 기여도 변화에 따르면 올해 내수 기여도는 일제히 하향**
 - 올해 내수 회복세가 전망대비 부진한 점이 향후 추가 인상 속도 조절을 불가피하게 함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일자: 우혜영)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·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·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·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LS 증권